

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과서디자인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xtbook Design according to
the Change of Curriculum

주저자

박충훈 (Park, Chung-hun) pch@kduniv.ac.kr

경동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Professor, Kyungdong University

투고일	2020.10.08	심사일	2020.10.22	계재확정일	2020.10.26
-----	------------	-----	------------	-------	------------

이 논문은 2020년도 경동대학교 교비연구비로 연구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dong University Research Fund, 2020.

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과서디자인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xtbook Design according to the Change of Curriculum

목 차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와 방법
 - II. 교육과정의 변화
 - 1. 세계 교육환경의 변화
 - 2. 인재 육성전략의 변화
 - 3. 창의력, 상상력요구의 교육의 질 제고
 - 4. 경직된 교육체계 재정립
 - III. 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과서 발행의 운영개선
 - 1. 교육과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 도서의 특징
 - 2. 교과용도서의 활용 실태
 - 3. 교육과정 개정이 교과서 발행에 미치는 영향
 - 4. 최근 교과용도서 개발의 특징
 - 5. 교과용도서 연구개발의 여건 개선
 - IV. 교과서 디자인 개선방향
 - 1. 편집 디자인 개발 방향
 - 2. 편집디자인의 조형적 요소 구성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If the basic design of school education is the curriculum, textbooks are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essential tool for realizi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pla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ke the curriculum well, which is the basic blueprint, but for the design to be implemented properly, making the textbook well, which is the basic tool, is just as important. Therefore, editing and designing textbooks requires more than revising the curriculum and taking a strategic approach. Korea has also been striving to develop textbooks through several revisions to the curriculum, but it has been pushed back by the supply-oriented education policy, and has not specialized and specialized textbook publishers along with securing the expertise of textbook editing personnel. In other words, publishers that publish and supply textbooks should set specific subjects and invest heavily to specialize and characterize them. In doing so, there should be a system improvement that allows specialized and specialized publishers' textbooks to gain an upper hand in competition than those of publishers who publish and supply all subjects without characteristics. Expertise is assessed to be professional when, while continuing to do the same work, the focus and investment on the work, the training and utiliz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are consistently pursued, and the work of publishing more advanced publications can be done. Therefore, securing the expertise of textbook publishers and editorial staff, which play a key role in compiling textbooks, is a very urgent requirement to resolve.

keyword

Emoticon Design, Emotion/Sensitivity, Expression

논문요약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가 교육과정이라면 교과서는 그 설계도대로 교육을 실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필수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을 잘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설계도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기본 도구인 교과서를 잘 만드는 일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를 편집·디자인하는 일은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일 이상의 정성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과서 개발에 힘써 왔으나 물량주의 교육 정책에 밀리고,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교과서 발행사의 전문화,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교과서를 발행·공급하는 발행사는 특정 교과를 정하여 중점 투자함으로써 그 교과서를 전문화, 특성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교과를 망라하여 특성 없이 발행·공급하는 발행사의 교과서 보다 특정 교과목에 전문화, 특성화된 발행사의 교과서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상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성이란,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되, 업무에 대한 집념과 투자,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그리고 더 진보된 출판물을 펴내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를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교과서 편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서 발행사 및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요건인 것이다.

주제어

교육과정, 교과서디자인, 전문성 course of study, curriculum, textbook design, professional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교과서 발행사의 전문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범위로 한다. 시장경제의 급속한 진전과 디지털화 가운데에서 종래의 편집자 중심의 인재에서 디지털 기능에 적응할 수 있는 다면적인 응용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전환해야 하는 일과 교과서 발행사가 다양한 편집을 통한 좋은 교과서를 발행하기 위한 시스템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목적을 정리해 본다.

첫째, 교육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에 좋은 교과서 발행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둘째, 교과서의 외적체제와 편집디자인의 개념을 이론적 접근을 통해 좋은 교과서 편집디자인 방향을 도출한다. 요소별 관점에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종합적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과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셋째, 디지털 다매체 시대에 교과서 발행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디자인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넷째, 좋은 교과서가 좋은 교육의 기초라는 사실과 교과서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할 때,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체제나 품질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좋은 교과서로 개선시킬 수 있는 디자인 전문분야 활성화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다섯째, 전자책의 성장과 기존 출판사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과서 디자인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자료는 교과서를 발행하는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등에게 공유하고 활용하게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핵심능력 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교과 영역 간 균형 있는 학습을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흥미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교과서의 편집디자인 현황과 표현전략들을 종합적 시각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1차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교과서 편집디자인의 개념 및 외형적 체제의 요소별 특성을 파악하고, 교과서 제작에 있어 편집디자인 특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문헌조사는 교과서 디자인의 체제에 관한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수집한다. 아울러 실증적 사례는 교과서 정책 현황, 발전과정, 교육과정 자료 등을 통해 수집 및 분석하며, 이와 함께 교과서 개발 시 참여했던 기획 책임 연구원 및 편집디자이너 등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교과서 편집디자인의 요인별 항목을 도출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한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과서 발행의 운영개선에 대한 부분은 교육현장에서 변화의 요구와 교과서를 직접 발행하는 편집자와 발행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시된 문제와 변화의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각종 관련 서적과 문헌을 참고하여 편집 디자인의 개념과 요소를 파악하여 편집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고, 편집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정리하여 좋은 교과서 개발에 대한 시사점 및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II. 교육과정의 변화

미래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21세기의 글로벌 창의 인재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구명(究明: 깊이 연구하여 밝힘)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감축하며 효율성 있는 학습과 학습 흥미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세계 환경과 국가위상의 변화에 따라 인재육성 전략의 재조정이 요청되고 있으며 교육의 질에 대한 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점수 따기 식 교육경쟁, 획일적 교육과정, 과도한 사교육비 등의 병폐, 국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직된 교육체제, 단위학교와 구성원의 자율적 혁신

역량 미흡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교육과정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작은 문제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시대적 교육환경 이 디지털환경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변화의 시점에 이르렀다.

1. 세계 교육환경의 변화

학교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학습자의 전체적인 능력을 단편적인 지식 및 기능보다는 ‘역량 (competency)’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설계가 국제적으로 보급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역량을 반영하는 또는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설계의 보급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OECD의 DeSeCo 프로젝트(1997~2002)에서 제시된 ‘핵심역량(Key Competency)’라고 할 수 있다. 주요국의 핵심역량 설정비교표에서 보여진 국가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였거나 구상 중에 있다.

	DeSeCo	EU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퀘벡주)
용어	Key competency	Key	Key Skill	General	Key	Cross-curricular
상호 작용적 활동력	언어, 기초 활동	제1언어 외국어	의사소통	문해력	가려·기초·기능을 사용하는 능력	의사소통 관련 역량
	지식 및 정보 활용	수학과 과학기술의 역량	수학의 응용	수리력		
	기술 활용	디지털 역량	정보기술	정보 통신기술		
반성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학습 방법의 학습	사고기능 (협동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사고력	지적 역량 방법론적 역량	
요소	커다란 진량	진취적 정신	문제해결 협동	윤리적 행위	자기 관리력	개인적·사회적 역량
	자율적 활동력	인생설계와 개인적 목표설정		개인적·사회적 역량	팀워크	
이질적 집단에서의 교류력	관리·이해·한계·요구 표현	사회·시민적 역량 문화 인식과 표현	타인과의 관계 참여와 공헌	다문화 이해	타인과의 관계 참여와 공헌	개인적·사회적 역량
	협동력					
	문제 해결력					

[그림1] 주요국의 핵심역량 설정비교

국가마다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이 글에서 말하는 핵심역량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각 국가에서 제시되는 핵심역량의 요소를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대체로 언어의 의사소통 및 기술·정보, 사고, 자기, 타인과의 관계 등으로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는 기본 개념의 이해와 탐구 및 문제 해결의 연결과 함께 영역 및 지식 간의 연결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는 모두 고등사고 기능을 통해 아는 것을 적용하고 문제해결을 하는 수행능력에 초점을 두고 이를 기준으로 진술하고자 한다. 핵심개념은 빅 아이디어(big idea) 또는 큰 개념(big concept)이라고도 칭하며, 전이가 높은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이광우 외, 2014b: 61),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핵심개념의 설정은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커다란 추세로 ‘연결 개념’을 들 수 있다. 이 연결성 및 관련성은 교과 간 및 영역 간, 지식 간 등 분과주의 및 경계선이 명확한 교과 교육과정에서 종합적, 통합적, 융합적 학습을 도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재 육성전략의 변화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되짚어보고 혁신을 위한 해법을 크게 평등과 자유가 조화를 이룬 교육이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교육 시스템과 구조의 개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교육열이 높고 공교육 투자 수준 또한 높은 나라 한국,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교육 거둬나기’의 저자 박 정수 교수의 교육개혁에 대한 비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1),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교육이념의 조화에서 출발하는 고교평준화
- (2), 교육의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자치
- (3), 교육현장의 공정한 학생평가제도의 도입
- (4), 교원평가제의 도입
- (5), 21세기형 인재 양성에 적합한 새로운 학제의 도입 필요성
- (6),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 (7),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의 모색, 내신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
- (8),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학 시스템의 구조조

정과 국가적인 지원

(9),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

(10), 공공부문에서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사회의 관행 및 의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 등

지식기반경제 사회에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기에 교육 거듭나기를 통한 우리나라의 인재육성 전략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지식강국으로의 인재양성을 모색해야 한다.

3. 창의력, 상상력요구의 교육의 질 제고

2009년 1월 창의인성교육자문위원회 출범을 통해 본격 논의를 시작, 12월 2일 「2010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2010년 1월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안'을 발표, 3월 25일 '창의인성 시범교육청·선도학교'를 지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의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여전히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장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정책이 참신하거나 절실하다고 느끼지 않는 경향이 팽배하며 오히려 예전부터 추진돼 오던 창의성 교육이나 인성교육과 뭐가 다르며, 창의와 인성이란 단어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하며 의아해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추격형 사회에서 글로벌 창의사회로 전환해 감에 따라 창의성과 인성의 개념이 보다 융합적이며 포괄적으로 정의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과거 창의성 교육은 수사적 구호 수준에 머물러 왔으나 점차 창의와 인성의 공통(융합) 부분인 창의적 사고덕목의 함양이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하며, 인성교육도 단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덕목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대이다. 결론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과 운영은 학교에 일임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즉, 현행 교과지식 중심의 학교교육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학교교육으로 혁신이 과감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4. 경직된 교육체계 재정립

미래 교육과정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상실된 획일적

인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 국가 및 사회가 요구하고 학생의 능력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맞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학교로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키우지 못하면 교육은 지속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진행되어 온 경직된 교육체계를 학습자 주도형 교육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 티칭이 아닌 코칭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정체성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맞춤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이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 온 교육체계를 정리 분석해봄으로 미래교육과정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공급자위주의 과도한 교과편성이나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의 형식적 활동 운영 등의 경직된 교육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 ①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 경감하되, 기초·기본교육은 강화.
- ②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실현을 위해 학생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과정혁신.
- ③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교실개혁 유도.
- ④ 교과지식 중심의 교육활동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활동 강화.
- ⑤ 교육과정 개혁을 기반으로 한 수능시험의 근본적 개선 유도.
- ⑥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의 연속성 유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Ⅲ. 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과서 발행의 운영 개선

1. 교육과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 도서의 특징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교과용 도서들도 학년별, 교과별 특성을 감안한 교과서를 발행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전체적인 교육의 과정에서 볼 때, 교과서와 교육과정 내용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교과서를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교과서와 교육과정 또는 교육 내용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교육 내용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개념·원리·기능을 의미하고, 교과서는 이들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교재이며 도구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교과서는 국가수준의 교육내용을 실현하고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자료로서의 성격보다는 교과서 그 자체가 고정된 교육내용으로서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 이 입장에서 교과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를 학습 자료에 불과하다는 시점으로 본다면 교육과정의 자율적 적용 단계에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 그리고 다양한 교육 자료의 충분한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2. 교과용도서의 활용 실태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활용 실태 분석 연구 논문(이주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제시한 교과서의 활용 실태에 대해 그의 결론과 제언을 제시한다. 이상적인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실제 교과서에 대한 인식 간에 큰 차이가 있어, 실제 교과서가 이상적인 교과서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에서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 교사들은 과다한 행정적인 업무로 인한 교수-학습 자료의 연구 시간의 부족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즉 이런 교과서 중심 수업에 대해 교사들은 행정 업무량의 감소 이외에도 교수-학습 자료의 보급을 중요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교과서 중심 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상적인 교과서에 부합하는 교과서가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교과서와 거리가 먼 교과서를 수업에서 다룬다면, 학교교육의 일관성이나 지속적인 교육의 형태를 지속할 수 없어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좋은 교과서가 개발되고, 교과서에 딸린 교수-학습 자료가 아무리 많이 보급된다 하더라도 교사의 재구성의 영역은 남아 있어야 한다. 어떠한 자료라도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이 재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체제가 갖추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행정적 의무들로부터 교사를 해방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과정 개정이 교과서 발행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교과서 개편 과정을 보면, 교육과정 개정안이 확정·고시된 이후 교육과정 개정의 후속 지원 업무로서 교과서 개발이 시작된다. 즉, 고시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국정 또는 검정 교과서가 새롭게 편찬·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개정 주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교육과정 개정 이후 교과용 도서 개편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이 교과서 발행사 및 저작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첫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 상실을 전체 응답자의 77.5%가 우려하였으며, 둘째, 교과서 일관 검정에 따라 피로감이 누적될 것이라는 의견에 응답자의 85%가 우려하였고, 셋째, 교과서의 잦은 개편으로 교과서 발생사 및 저작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에 73.2%가 동의하였다.

넷째,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은 결국 교과서 발행사의 도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62.4%가 동의함. 다섯째, 교과서 시장의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조심스런 의견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잦은 개편이 창의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의 잦은 변경이 교과서 발행사 및 저작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방해할 것이라는 의견에 교과서 발행사와 교과서 연구자들 모두 동의하지만 교과서 발행사의 경우 약 29%가 교육과정 개정이 창의적이고 신속한 교과서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내용	영향을 미치는 정도					평균	표준편차	계
	전혀아님	아닌편	보통	그려한편	매우 그려함			
1)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 상실	2(2.0)	6(5.9)	15(14.7)	31(30.4)	48(47.1)	4.15	1.009	102(100)
2) 일관 정책에 따른 피로감 누적	2(2)	7(7)	6(6)	41(41)	44(44)	4.18	.968	100(100)
3)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	3(3)	4(4)	20(19.8)	37(36.6)	37(36.6)	4.00	1.009	101(100)
4) 발행사 도산 위험	4(4.0)	10(9.9)	24(23.8)	30(29.7)	33(32.7)	3.77	1.130	101(100)
5) 교과서 시장의 붕괴위험	8(8)	11(11)	34(34)	24(24)	23(23)	3.43	1.191	100(100)
6) 창의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	24(24)	33(33)	21(21)	10(10)	12(12)	2.53	1.291	100(100)

[그림2] 교육과정의 잦은 변경이 발행사 제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단별 의견

4. 최근 교과용도서 개발의 특징

제7차 교육 과정에 고시된 교과용도서 개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정제의 급격한 확대와 준 자유발행제로의 이행 등 발행제의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었으며, 집중이수 제를 지원하기 위해 학년 군 단위로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초등 사회 3-4학년의 경우 학기별로 교과서를 개발하던 것을 사회 3-4 ①,②,③,④ 식으로 표시하여 학년군제의 취지를 살려 발행을 시도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각 영역을 통합하여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대상으로 초등 통합교과는 바른생활/즐거운 생활/슬기로운 생활의 학습주제를 각각 8개로 정하고 주제별로 통합하여 편찬하였다. 국어는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국어활동 책을 워크북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전자저작물 CD, e-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자도서 도입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디지털 시대를 의식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 보완교재를 정비하여 본 책에 통합,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전면 무상 공급 및 가계 부담을 고려하는 인정 도서 가격 적정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교과용도서연구개발 작업을 하는 몇몇 인사들의 숨은 노력과 희생의 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희생의 강요만으로 질 높은 교과용 도서 개발을 기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 개발 제도 및 그 운영의 합리성 도모, 전문 인력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의 교육이 질적인 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5. 교과용도서 연구개발의 여건 개선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 개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력 향상에 기여하는 교과용 도서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도 교육 연구자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다 보니 교과용도서 개발의 비과학성 및 비체계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며, 교과용도서의 본질적인 기능 보다는 주변적인 문제가 교과용도서의 체제나 내용을 결정하는 유일한 준거로 작용하는 문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둘째, 교과용도서 연구 개발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개발 기간의 문제, 전문 인력의 문제, 개발 예산의 문제 등등 개선할 문제가 많다는 의미이다. 1종도서는 2종도서 보다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개발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1종 도서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손꼽을 정도이며, 연구 개발 예산은 비현실적인 단계를 넘어 연구 개발에 참여한 인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교과용 도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한 교과용도서 연구개발 체제의 확립이다. 한국의 교과용도서 연구 개발 역사상 교과용 도서에 대한 평가 연구를 수행한 경험도 거의 없고 또한 이들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용 도서를 개선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접근도 없었다. 적어도 국가 수준에서 요구하는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준 또는 객관적인 준거는 필요하다. 넷째, 교과용 도서에 대한 인식 지평의 확장이다. 인쇄 자료만이 유일한 교과서(교수·학습 자료)로 간주되던 시대는 지났다. 가능한 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접하면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열린 공간을 허용해 주어야 하며, 하나의 근거에 집착하여 믿음을 고착시키는 우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전자책, 교육 통신망을 이용한 교수·학습 자료의 보급 등 인쇄 자료로서의 교과용 도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교과서 편찬을 위해서는 편집 전문 인력의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연수와 전문 교육 훈련을 통하여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국, 검, 인정 교과서협회 및 출판사

등의 협조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과서를 발행, 공급하는 출판사는 특정 교과를 정하여 중점 투자함으로써 그 교과서를 전문화, 특성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좋은 교과서 디자인 개선방향

시대가 변화하면서 선진 국가들이 먼저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관심을 가졌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7년부터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초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으로 기술적, 기능적인 부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교과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기본개념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원래 교과서의 언어적 영역과 시각적 영역에 영상을 통한 이미지의 음향(Sound)영역이 추가적으로 디지털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좋은 교과서는 내용적, 시각적, 음향적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포함된 입체적이고 인터렉션(Interaction)이 가능한 교과서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지만 학교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과서의 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디자인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디자인의 기본 개념에서 기능적인 요소가 첨가된 것이기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디자인요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육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교과서 편집 디자인 개발 방향

교육과정의 변화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세계교육 환경과 국가위상이 바뀌고 있고, 학교교육은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는 창의성 교육과 참된 인재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제는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는 모든 편집자나 출판사 관계자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출판에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적 요소를 더하여 교과서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

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가 해야 할 기능의 구현과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시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1), 교과서 개발 형태의 다양성이 확보.

현재 교과서 개발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집필진들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있지만 실제로 교과서 형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은 획일적인 규정에 매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교과서 편집 디자인 체제가 시스템화 되기 위해서는 내용 구성 체계, 교과서 편집 체제 등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정은 풀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교과서 개발 과정에 전문 편집 디자이너와 전문 업체 참여.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편집 지침과 레이아웃 형태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전달 매체가 구현하고 있는 디자인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학업 성취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 과정과 교과서 편집 단계에서 전문 디자이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도 이와 관련한 전체 과정을 관장할 전문 편집 디자이너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내용 집필영역과 교과서 편집 디자인 영역은 서로 통합적인 작업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양질의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이를 출판하는 업체를 전문화, 특성화 시키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연구 개발된 편집 디자인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사 선정을 가능하면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편집 디자인 체제 적용 영역만을 따로 분리하여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적용하고, 출판 인쇄만을 기존의 지정 업체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우수한 편집 디자인을 위한 과감한 투자.

교과서 편집디자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출판과 발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떤 형태의 질 좋은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 보다는 적기(適期)에 공급 되어야 할 물량의 확보와 교육시작 시점에 미지급 또는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규모의 시설이나 기술을 보유한 대상 찾기에 기

준을 두고 진행이 되었기에 디자인분야에 대한 투자나 관심은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에 발행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디자인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발행시점에서만 관심과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기술과 기능을 통한 교과서 출판은 변별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높여야 할 때이다.

(4). 지적 호기심과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

교과서에 게재 사용되는 사진, 삽화, 도표 등은 시각을 통해 사물, 현상 등을 알기 쉽게,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학습 의욕을 높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게재할 때에는 학습 내용과 관련성이 깊은지? 학습 효과를 제고 시키는 것인지?를 잘 살펴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표현의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또 교과서에는 지식·기능을 무작위로 게재할 게 아니라,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 라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제공해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계획을 세우는 일, 조사 방법, 관찰과 실험법, 대화와 보고 요령 등 학습 활동의 과정 등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2. 교과서 편집디자인의 조형적 요소 구성방안

제7차 교육과정 공통 사항에서의 제시 내용에 판형, 지질, 색도, 편집 배열 등 외형 체제는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가급적 준수하되, 교과 내용과 부합되는 양질의 사진, 삽화를 사용하고 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동기 유발 및 흥미를 높이도록 한다. 라는 편집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과서는 내용 못지않게 편집 체제가 잘 꾸며졌을 때 정보 전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고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 중에서도 교과용 도서 외형 체제에서의 편집 디자인 제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 편집디자인의 조형요소 구성방안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1). 디자인 설계 및 레이아웃

교과서 편집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 기획은 매우 미래지향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디자인기획이 잘 정리가 되면 기획된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펼쳐 놓은 것이 바로 레이아웃이라 생각된다. 레이아웃은 사전적 용어로 질서, 배치 배열 이라는 뜻으로 통용되는데, 교과서 편집디자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편집 디자인은 책의 지면을 디자인하는 의미 뿐 만 아니라, 독자의 독서 행위를 고려하면서 글과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책의 구조적인 디자인, 인쇄와 제본 방식을 결정하는 포괄적 디자인 행위를 지칭한다.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에는 타이포그래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색상, 여백 등이 있고 구성의 원리에는 통일, 변화, 율동, 강조 등의 구성 원리를 통해 컨셉(Concept)을 정하고 그와 일치되는 크리에이티브한 편집디자인을 만들어 낸다. '디자인을 완성하는 레이아웃과 그리드'에 따르면 레이아웃은 가독성, 안정감, 율동성, 강조성, 주목성, 명쾌성, 조형성, 창조성이 중요시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독성이다. 아무리 잘 정리된 디자인도 가독성이 떨어져 잘 안 읽힌다면 이 디자인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에 어울리는 폰트를 선택하고 자폭과 자간, 행간을 조절하는 것이 편집디자인에 있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2). 타이포그래픽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교과서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서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양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적절하게 사용되었을 때 가독성·조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 전문 출판사들도 출판사 고유의 글자체의 개발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전용폰트를 개발하여 교과서 편집디자인에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문화에 의해 사용되어진 E-Book과 웹이나 태블릿PC 등의 화면용에서 잘 보이는 서체의 개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화면용에서는 굴림체의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서체로 굴림체에 대한 폰트를 개발하거나 출판용 화면용으로 나눠서 따로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선호하는 한글 글자체와 가독성이 높은 글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서속도 측정법(speed-of-reading method)에 의한 가독성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컴퓨터 화면에서 제시되는 글자체가 익숙해지면서 인쇄자료에서 선호하는 글자체와 가독성이 높은 글자체도 돋움체류와 굴림체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글자체가 교과서에서도 학생들의 선호도와 가독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또 타이포그래피의 활용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는 바로 타이포(폰트)의 크기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 편집디자인에 활용된 글꼴을 크기별로 비교하면 1~2학년, 3~4학년, 5~6학년 별로 같은 크기의 폰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중학교 교과서는 11pt, 고등학교 교과서는 10.5pt를 기준으로 하고, 활자체·어간·자간·행간 등은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한다. 한정적인 지면에 더 많은 글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러스트의 사용이 없더라도 글자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올바른 편집디자인이 정착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교과서 편집디자인에 있어 서체 활용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진, 그림(일러스트레이션)

교과서 편집디자인에서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삽화), 아이콘 등의 시각 이미지는 글 위주로 된 내용보다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삽화의 경우 주제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자와 작가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선택을 해야 한다. 또 사진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주목성이 높아 사용 방법에 따라 전체적인 시각의 흐름이 결정되므로 적절한 트리밍과 사진의 크기, 틀의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시각자료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교과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각이미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교과서 편집디자인에서 가장 큰 문제를 손꼽는다면 사진, 그림(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70~80년대에 발행된 교과서와 현재의 교과서가 큰 차별화가 없이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시각이미지인 사진, 그림(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단정 한다. 새롭고 획기적인 이미지의 교과서를 발행하려면 시각요

소의 중심소재인 사진, 그림(일러스트레이션)의 스타일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현재 교과서에 게재된 일러스트레이션은 대체적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나, 스타일에 일관성이 없다. 또 한 페이지에 너무 과하게 일러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 적절한 사진이미지의 활용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적절한 일러스트레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가들의 발굴이나 실력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 국내에도 우수한 표현력을 지닌 작가들이 많지만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할 계기가 마땅치 않다. 출판사와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좋은 수준의 작가라 할지라도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어떤 이미지의 일러스트레이션을 학습자들이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들이 원하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이미지의 선택이 중요하다.

(4). 색상

인간은 사물을 지각하기 위해 시각적 요소에 많은 부분을 의지한다. 교과서에 활용되는 색채는 시각자료의 다색화 및 원색화를 통해 교과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고 있으며, 학습내용별 색채를 지정하고 전 단원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하여 색채에 따른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교과서에 적용되는 색채는 학습의 중요도를 구분하고, 시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며, 경직될 수 있는 교과서에 활기를 부여해 정확한 내용 전달 및 학습 동기 유발을 목표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색상, 채도, 명도 뿐 아니라 유사성, 보색대비, 색상혼합 등 색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색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색의 대비, 강조, 조화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이러한 세밀하고 섬세한 색채계획을 교과서 구성 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학습내용에 계층별 구조를 부여하고 가독성 및 판독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또한 시각자료의 다색화 및 원색화는 교과서 기획 단계부터 색채계획에 포함하여, 연상과 상징을 고려한 학습 내용별 색의 적용과 함께 세밀한 계획을 통해 접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색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고, 레이아웃 효율을 극대화시켜 교과서 지면에 선명성 및 생동감을 부여해야 하며, 간결하고 정확하게 학습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효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과서발행의 운영개선점에 대해 교과용 도서의 특징과 교과용도서의 활용 실태, 교육과정 개정이 교과서 발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많은 연구자들의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교과서를 발행하기 위한 디자인 개선방향을 두 개의 영역으로 1.교과서 편집 디자인 개발 방향 2.교과서 편집디자인의 조형적 요소 구성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오랜 기간 연구를 하면서 교과서는 발행에 따른 중요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가 편집디자인 분야라 판단하였다. 다시 한번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첫째, 교육과정의 변화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의 분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 즉, 세계의 교육환경과 국가위상의 변화에 합당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어울리는 교육과정과 인재육성을 위한 전략이 세워져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교육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경직된 교육체계를 재정립하여 미래교육에 적합한 창의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육과정변화에 따른 교과서 발행의 운영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편집인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지적하였다. 좋은 교과서 편찬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라 할 때,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은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 출판사로서 제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개선점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편집자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 연수를 통해 직무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편집자의 연수를 담당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전문 출판사는 교과서 출판의 명분과 교육적 사명을 가진 출판사로서, 편집

전문 인력의 상시 확보와 교과서에 관한 연구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전문 출판사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과별 전문 출판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합리적 경영은 물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출판사 경영에 대한 반성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편집디자인 분야의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출판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마지막부분으로 교과서 디자인을 개선하려면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지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내용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교과서 개발은 편집디자인이 교과서의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잣대가 되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교과서 발행의 개선이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지 못해 현 시점에서 좋은 교과서 발행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의 끝부분에 좋은 교과서 디자인 개선방향을 두 가지로 분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1.교과서 편집 디자인 개발 방향에서는 교과서 편집디자인의 내용적 요소들을 개발자, 발행자, 이용자의 측면에서 요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연구하여 (1), 교과서 개발 형태의 다양성이 확보. (2), 교과서 개발 과정에 전문 편집 디자이너와 전문 업체 참여. (3), 우수한 편집 디자인을 위한 과감한 투자. (4), 지적 호기심과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 미래교과서 편집디자인의 조형적 요소 구성방안으로는 눈으로 보여 지고, 느껴지는 시각적 요소 (1), 디자인 설계 및 레이아웃. (2), 타이포그래픽. (3), 사진, 그림(일러스트레이션). (4), 색상. 들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좋은 교과서 편집디자인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 앤드류해슬램, 송성재 옮김, 『북디자인교과서』, 안그라픽스, 2008
- 조성준, 『교과서 편집실무론』, (주) 금성출판사, 2007.5
- 광병선,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의 방향. 교과서연구 56, 4-9」, 2009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2012-6호) 교육인적자원부 편」, 2012
- 교육인적자원부, 「우리 교과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03.4
- 국립한글박물관, 「슬기롭게 사이좋게 초등 교과서 속 한글이야기」, 2016
- 김재춘·이경환·김만근·박상철·박소영,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11
- 박삼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론-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이해」,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출판교실 강의교재, 2003
- 손정수 외,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부산 교육발전과제 최종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2010.
- 이대희·안효질, 「전자교과서 개발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2002.
- 이영길, 「초등학교 교과서 본문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이주연,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활용 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6
- 조성준, 「교과서 편집 디자인 체제 구축 및 기능 제고」, (재)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제42호, 2004.
- 조재형, 「인쇄 자료의 글자체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가독성과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 조정윤, 「21세기를 향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 최기웅, 「교과서 디자인 개선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0.
- 최선아, 「교과서의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편집 디자인 연구-초등학교 3,4학년 사회교과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11.
- 허강 외4인, 「교과서 발행사의 운영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03.2.
- 현영호 외2인, 「교과서 게재 시각자료의 미적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04.4.
- 홍후조·민부자·윤광원, 「디지털 교과서의 미래상으로서 “교과서 포털”연구」. (주) 미래엔 부설 교과서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1-11.
- ‘e-교과서 내용도 없고 불편 “교사 학생 아무도 안 본다.” 경향신문, 2012.10.2.
- 교육과학기술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개발 본격 착수” 보도자료, 2007.3.15.
-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2010.1.12.